

# 천혜의 비경 365개 보물섬 여수 섬 관광 특별한 힐링

1000만 관광객이 여수시의 아름다운 '밤바다' 만끽할 수 있는 섬 관광과 유람선 투어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65개의 보석 같은 섬과 가막만·여자만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여수지역은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국제해양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면서 여수 섬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도



금오도 비렁길



화태대교



하화도

◇금오도 비렁길 등 주요 섬 관광지 방문객 급증=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발간한 해양수산 통계자료집 '해양·수산 꾸러품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오도 비렁길 등 여수섬을 찾는 관광객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1년 182만6000명에서 지난해 205만 8000명으로 늘었다. 여수해양수산청 관할인 19개 항로에서도 같은 기간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비렁길을 간직한 금오도 항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추세다.

금오도 비렁길 절경과 배를 타고 토종 삼고래의 유영을 즐길 수 있는 백야~직포 구간 이용객은 운항 초기인 지난 2013년 6만4232명에서 지난해 7만2941명으로 8000여명이 늘었다.

돌산 신기에서 금오도 여천항을 오가는 기존 여객선도 지난 2011년 24만2793명에서 지난해 49만4529명으로 증가했다.

또 도심에서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여수 엑스포장과 돌산대교를 오가는 부정기 여객선의 이용객은 지난 2011년 1만842명에서 지난해 20만1418명으로 크게 늘었다.

## 금오도 비렁길·하화도 야생화 등 섬마다 색다른 매력 지난해 206만명 찾아...해양관광 블루오션으로 부상

지난해 9월 11년 만에 바닷길이 부활한 여수~제주 구간도 운항 4개월 동안 5만 7204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문도 방문객 줄고 하화도 늘어=아름다운 여수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국 대표 관광지인 거문도·백도를 잇는 여수~거문 항로 경우 지난 2011년 21만3076명에서 2013년 22만 66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15만4883명으로 줄었다.

이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당 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여수~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2척에서 1척으로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고흥 녹동에서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이용객은 늘어 2012년 1만7687명에서 지난해 2만5981명으로 150%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지형변화로 여수 섬 관광을 대표하는 하는 노선도 과거 거문도에서 금오도로 바뀌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여객선을 이

용해 섬을 오간 관광객 총 205만7696명 중 금오도를 찾은 관광객은 77만7751명(37.8%)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난해 11년 만에 재개된 여수~제주항로 이용객 등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38만4674명으로 18.7%를 기록했고 야생화의 천국 꽃섬 하화도가 18만7535명(9.1%)으로 거문도를 제치고 3위를 뛰어 올랐다.

◇2020년 11개 연륙·연도교 완공=섬 관광 '전성시대'=1000만 관광객이 여수·한려해상·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아름다운 365개의 크고 작은 섬과 거문도·백도 기암괴석, 905.87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육지 일부가 바다 속에 잠겨 이루어진 굴곡진 해안)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 가막만 등을 보유한 천혜의 해양관광 보고지.

특히 여수를 대표하는 가막만과 여자만 중 가막만은 여수·화양반도, 돌산도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해안생태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천연의 만이다. 여자만은 화정면 여자도를 중심으로 순천만과 고흥반도까지 이어져 있다. 최대 수심은 40m에 달하며 모래나 자갈이 거의 없는 청정갯벌로 이뤄져 있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한다.

가막만과 여자만은 특성상 바다라기보다 호수에 가깝다. 고흥반도와 화양반도, 여수반도에 둘러싸여 있고, 남도·개도·금오도·돌산도가 집금다리처럼 아름답게 바다에 떠 있기 때문이다. 이 섬들은 오는 2020년 11개의 연륙·연도교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현재 1시간 20분이 걸리는 여수~고흥간 이동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아름다운 다도해 섬들을 더욱 쉽게 오갈 수 있게 돼 천연의 비경(秘景)을 간직한 365개의 섬을 보유한 여수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23일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의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여수시를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SNS 활용 여수시 소통 정책 시민 호응

### '여수신문고' 적극 시정 참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여수시의 소통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 6기 핵심 정책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본격 운영중인 공식 SNS '여수신문고'가 주요 시정과 핵심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매월 운영중인 도란도란 소통방은 시 정책 집행에 앞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소통성과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소통방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 과 대책',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까지 알려주어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여수시는 또 단순 시정정보와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시민 개인의 소소하고 다양한 일상을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섬지역인 화태초등학교 율호분교 학생의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여수시는 공식 SNS인 '여수신문고'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너무해', '우리 쌤이 최고야'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타보고 싶다'는 사연을 알려 구독자 20만명을 웃도는 응원을 받기도 했다. 또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쌤이 최고야' 코너를 마련하고 SNS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소통을 연결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1000만 관광객이 여수의 관광명소와 대표음식, 축제 등을 중심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홍보효과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배수지 물탱크 청소소 오늘부터 부분 단수

여수시는 "24일 덕충동 엑스포배수지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54일간 관내 38개소의 배수지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 및 수도는 수도 등 관련법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뉘어 2회 실시되며, 배수지별로 단수 조치가 내려진다.

여수시는 단수 세부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일정에 따라 단수지역 시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비롯

한 마을 엠프방송, 유선방송 자막홍보 안내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물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지역별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단수할 예정이지만 가정마다 비상용 물을 충분히 저장해 놓는 등 단수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061-659-4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저소득층 아동 지도 '대학생 선생님' 27일까지 모집

여수시는 "내달부터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울 '대학생 튜터(Tutor·가정교사)'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는 여수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70명을 모집한다.

대학생 튜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여수보육원 등 총 44개의 아동복지시설에 파견돼 국어, 영어, 수학 등에 대한 기초학습을 지도하게 되며, 1회(4시간) 학습지도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만원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52)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학생의 지식과 재능 나눔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천변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